



호주 토착 식물로 만든 수직정원
One Central Park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한 시드니의 고층 트윈 빌딩. 독특하게 세로로 긴 형태의 정원을 건물 외부에 더했다. 가든 디자인을 담당한 식물학자 파트리크 블랑은 어떻게 하면 세로 형태의 정원에 미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곁에서 볼 때 아름다운 것 외에도 실제 이 건물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워할 수 있을지 고심했다고. 결론적으로, 고층 빌딩 표면에 각각 크기가 다른 22개의 정원을 만들었다. 더불어 건물 외벽에 만든 정원인 만큼, 빗물을 저장했다 물을 주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 더불어 파트리크 블랑은 외부 가든에 호주의 토착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250여 가지의 수종을 찾아내고 크기가 각기 다른 식물들을 분류해 22개의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을 꾸미는 일에 앞서, 그 도시에 애착을 갖고 토착 식물을 찾아낸 다양한 정원을 만들어낸 디자이너의 남다른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Patrick Blanc

glue